

News

변동형 주담대 금리, 변동없다... KB국민은행 최고 3.98%

머니S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0.82%로 전월과 동일.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신규, 신 잔액 기준 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는 비슷한 수준 유지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거론됐던 주담대 금리 인상 우려가 겹쳤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85.1조원으로 전월보다 0.3%(1.2조원) 증가

하나금융, 주주명부 폐쇄... 중간배당 초읽기

조선비즈

하나금융지주는 15일 주주명부를 폐쇄한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통상 시장에서 배당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인식 하나금융은 그동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매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8월 쯤 중간배당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은행은 외면했는데... 틈새 파고든 네이버, 반 년 만에 '500억'

한국경제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캐피탈과 손잡고 내놓은 비대면 대출 상품이 6개월 만에 500억원 넘게 팔려나가며 '소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자체 개발한 '대안 신용평가'를 대출 심사에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대출 심사에 반영

美사모펀드, 토스에 1,050억 원 투자... 기업가치는 7조원

서울경제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미국 사모펀드에서 1,050억원을 투자 받았다. KDB산업은행과 해외 투자자 중심으로 기업가치를 7조원 넘게 인정받아 모두 4,500억 원을 유치 투자금 4,500억 원 중 약 2,000억 원은 9월 출범하는 토스뱅크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기존 토스 앱 강화에 주요 쓸 계획

'금리상승 역풍'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에 부랴부랴 자본확충

머니S

MG손해보험은 최대 주주 사모펀드JC파트너스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관계자는 "JC파트너스가 올 상반기 중 유상증자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 기준 RBC비율은 108.8%로 업권 최하위에 속했다. 이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증자로 풀이

'자산 71조' 신한라이프 내달 출범... 생보업계 지각변동 예고

동아일보

7월 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통합한 '신한라이프' 공식 출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산 총자산은 71.5조원, 수입보험료 7.9조원으로 생보업계 4위 신한라이프는 헬스케어 서비스 등 디지털 사업에 진출하고 베트남 해외법인 출범을 계기로 해외 사업도 확대하기로 결정

잡코인 대청소 시작됐다... "5개 코인 거래종료, 25개 유의종목 지정"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발 태풍

중앙일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잡코인'(잡스러운 암호화폐)의 정리에 나서는 중. 오는 18일 다섯 개 암호화폐(페이코인·마로·옵저버 등)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11일 공지 업비트는 또 25개 암호화폐(코모도와 에드엑스 등)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일주일 동안 업비트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

'테슬라 車보험' 인기...데이터 원 자동차회사들, 보험업 넘본다

한국경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험업에 손을 뻗고 있다. 갈수록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이점을 지닌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존 보험사들 경쟁력을 뛰어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테슬라는 2019년부터 자사 전기차 대상 '테슬라 전용 보험'을 제공. 국내는 보험업법상 자동차 제조사의 보험업 영위를 규제 사안 없어 보험 도입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